

**우리나라 조사료 산업의 현황과 연구방향**김종근<sup>1,2\*</sup><sup>1</sup>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학과<sup>2</sup>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친환경경제동물연구소

조사료는 반추가축을 기르는데 있어 소화생리상 필수적으로 급여해야하는 먹이다. 우리나라의 조사료 수급현황을 보면 가축 사육 두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560만톤이 이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국내산 조사료는 약 460만톤으로 8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약 100만톤의 조사료가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중에서도 약 200-220만톤정도는 사료가치가 낮은 벼짚으로 충당되고 있어 실제 양질 조사료 공급은 42%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다양한 조사료 증산 정책에 힘입어 기본 인프라의 구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에 1,780개의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있으며 38개의 정부지원 조사료 TMR 가공시설과 21,792ha의 조사료 전문단지도 확보되어 있다. 질적인 면에서도 품질제고를 위해 품질검사와 등급제를 통한 품질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저수분 조사료 생산이 늘어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이 약 30만ha까지 증가되었으나 2015년 이후로 정체가 되어 새로운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현재의 조사료 생산은 논을 이용한 월동사료작물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쌀 생산 조정 정책과 더불어 벼 대체작물의 재배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쌀 생산조정제 조사료 생산 지원 정책은 새로운 조사료 생산기반 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기후에 잘 적응하는 우수한 목초 및 사료작물 품종의 개발과 더불어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배법의 확립도 필요하다. 조사료의 주된 소비처는 소를 기르는 농가이지만 앞으로는 소비처를 조사료가 필요한 반려동물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가공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료내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기능성 조사료 이용을 통하여 가축의 건강 증진은 물론 기능성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앞으로 10년이내에 조사료 시장도 개방이 될 것이다.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연구자들의 단합된 역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사사]**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No. PJ011779022017)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Korea.

\*주저자: Tel. 033-339-5728, E-mail. forage@snu.ac.kr